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처음 들었다”

■ 5·18 배우러 광주 찾은 부산대 김효제씨 광주시민과 사회 함께 고민해 역사 바로 알려야

“5·18을 직접 겪은 분들도 많고 그날을 기록한 자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를 왜 알아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광주시민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년 전 그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던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효제(22)씨는 난생 처음 광주를 찾았다. 지난 17일 광주에 온 그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유족들을 만났다. 이후 구 전남도청 분수대를 찾은 김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대학교와 구 전남도청 등 5·18과 직접 연관된 장소에서는 그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던 터라,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생각보다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30여 년 전 광주를 위해 싸웠던 시민과는 달리, 오늘의 광주 시민들은 그날을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날처럼 여기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2012년 영양에서 해군 생활을 하기 전까지 전남에 와 본적도, 관심도 없었다. 광주와 5·18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4년 전 전남도청을 직접 보고 들은 중년의 군간부를 통해서였다.

낯선 사투리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참혹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이는 분명 교과서에서 배웠던 부분과 달랐다.

그는 불과 30여 년 전 5·18이라는 비극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유족들에게 진실을 듣고 싶어 광주에 왔다고 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34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들었다는 그는 5·18을 과거에서 현재로 불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모르는 세대를 타하기 전에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5·18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역사를 알려준 것은 증언이 아니라 기사가 아닌 ‘화려한 휴가’라는 영



5·18에 대해 알기 위해 18일 광주를 방문한 김효제 씨가 “1980년 5월 광주, 그날”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화였습니다. 5·18을 박제된 기록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 숨 쉬는 기억으로 만들 것인가는 광주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

광주 산악인 김미곤, 칸첸중가 등정 성공

8000m급 11개째 올라 ‘14좌 완등’ 3개봉 남파



지난해 7월28일 히말라야 가셔브롬 I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펼쳐두고 있는 김미곤 대장(왼쪽).

광주지역 중견 산악인 김미곤(42·한국도로공사산악팀) 대장이 18일 히말라야 칸첸중가(Kanchenjunga·8586m)봉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등정으로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가운데 11개의 정상을 밟아 ‘14좌 완등’까지 3개 봉을 남겨뒀다.

“2014 한국칸첸중가원정대(단장 이성원)에 따르면 김 대장은 18일 오전 8시15분(현지시간) 세르파 2명과 함께 칸첸중가 정상을 밟았다. 김 대장은 전날 오후 7시 마지막 캠프인 제4캠프(7500m)를 출발해 13시간15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98년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후 고산 등반을 시작한 김 대장은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 연속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칸첸중가 등정으로 조오유(2000년), 마칼루(2001년), 가셔브롬 II(2006년), 다울라기리(2009년), 마나슬루(2011년), K2(2012년), 가셔브롬 I(2013년)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1개를 올랐다. 14좌 완등까지는 안나푸르

나와 낭가파르bat, 브로드피크 등 3개 봉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 출국한 원정대는 정상도전에 앞서 해발 7500m 부근에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순천만 정월백일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칸첸중가 원정에 나섰다. 정상에 올랐을 뒤 하산 도중 숨진 박남수 등반대장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눈사태 등으로 시신이 유실된 지점의 세락(빙타)이 붕괴되는 등 지형 변화가

커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원정대는 이달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은 순천정월백일담 조직위원회와 블랙야크, 한국도로공사 등이 후원했다.

히말라야의 가장 동쪽 내팔과 부탄(시킴)의 경계에 솟아 있는 칸첸중가는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티베트어로 ‘큰 눈(雪)’으로 이뤄진 다섯 개의 보고(寶庫)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학교 NIE’ 교장 연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소장 노성환)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교, 함께 하는 NIE’ 교장연수가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제공>

광주 산악회 동호인 정기 세미나



광주 산악회 동호인 150여명은 지난 16일 서구 농성동 프리자에서 유정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와 19개 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광주 산악인 동호회 제공>

5·18 시민 상황실장 박남선씨 ‘오월 그날’ 펴내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가 ‘오월그날’을 펴냈다.

그는 전남도청에서 운상원 열사와 마지막까지 광주의 새벽을 지켰던 산 증인이다.

이번에 발간된 ‘오월그날’(샘물 출판)은 25년 전 조판(1988년)을 기초로 몇 개의 글이 덧붙여져 새롭게 탄생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궤멸당하는 현실에서 광주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5·18은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출소 이후 망월동에 가게 된 사연, 2부는 최후 항전하다 포로가 된 기억, 3부는 사형선고를 받기까지의 기록, 4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걸리게 된 인생 등이 담담하게 기술돼 있다.

한편 ‘오월그날’ 출판기념회가 19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오후 4시)에서 열린다. 문의 062-376-519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16일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서 이양기를 타고 직파(점파)를 시연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중앙회, 보성서 ‘직파 시연회’

최원병 회장 등 참석

농협중앙회는 16일 보성군 득량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경영비 절감 직파(점파)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직파’란 일정한 간격의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를 1립 또는 2~3립씩 뿌리는 것으로 일반 모내기와는 다른 방식의 벼 재배 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무논점파’는 육묘와 이양작업을 동시에 해결해 기계 이양 대비 ha당 34만9000원의 생산비용과 22.3시간의 노동력이 절감된다.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와 쌀시장 개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무논점파 기술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직파작업기와 운영비용 등을 지원, 총 12개 지역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부대, 국제요리 4년 연속 금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4 서울 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4년 연속 금메달과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호텔조리학과 임정순(3학년)씨는 광주김치전시부문 국회의장상과 향토음식 전시부문 금메달을 받았다.

황지일·우명훈(4학년)씨는 음료 경연부문과 칵테일 클래식 개인부문, 강태훈(3학년)씨는 개인전시 국제C(육류)를 이용한 3코스 요리부문, 박주영(2학년)씨는 국제D(가금류)를 이용한 3코스요리부문에서는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

청소년 교육지원 공모전

조선대 조아라 최우수

조선대학교 조아라(국어교육과 3년)씨가 한국 장학재단이 시행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15년 전 나를 보았노’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정찬우(주)광성관광대표)·김용례씨 장남 기원군 서현기(광주송일고등학교장)·김정화(광주송일중학교) 장녀 진리양 =24일(토) 오전 11시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구 메리아트).
- ▲윤옥윤(조대 강진군외장)씨 장남 훈(DYLNJ경영지원과장)군 박용길씨 장녀 소영양 =24일(토) 낮 12시 알펜시아웨딩컨벤션2층.
- ▲김상근(광산서 수완지구대장)·이성자씨 장남 진우군(조대병원 전공의) 최종열·이민자씨 장녀 하영(전대병원 전공의)양 =24일(토) 낮 12시40분 라페스타 2층 엘루체움.
- ▲김양중씨 장남 철근 김순수(순천 법무사)씨 막내 남형양 =25일(일) 오전 11시 30분 순천동부웨딩홀 1층 사랑홀 010-3641-2816.

동창회

- ▲북성중학교 제19회 동창회 및 월례회

=19일(월) 오후 7시 광주 농성동 송산식당 062-351-0909.

▲조대부고 총 동창회(회장 김성호) 및 정기총회 =21일(수) 오후 6시 30분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 062-224-1461.

▲영광 요양중앙초등학교 제25회 동창회(회장 이상심) =24일(토)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0-8877-6125.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 =20(화) 오후 7시 도지일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진도분원 정기총회 =20일(화) 오전 10시30분 진도군청 철마 도서관 회의실 3층 분원장 010-3728-9355.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 =22(목) 오전 11시 도지일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

원 서구분원 정기총회 =23일(금) 오전 11시 도지일 회의실 3층 010-5060-4661.

알림

▲광주신세계희망장남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무료이용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남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 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

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모집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 = 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 =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 참가자 =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 = 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명이라

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전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부음

▲김중구씨 별세 정기·주영·지혜·은호씨 부친상 = 발인 19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송자씨 별세 김원주(한국원자력연

구원 책임연구원)·선희(하나약국 대표)·옥경(무등일보 차장)씨 모친상 주수만(진상의원 원장)·최경수(사업)씨 빙모상 = 발인 19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정양덕 별세 신길식·강식·원심·원덕·원덕·원자·은숙씨 모친상 = 20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말레씨 별세 조병학·춘화·춘남·영남씨 모친상 = 발인 20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安수형 님(남/65세) 子/子婦: 안종희/이태희, 민희 女: 안수미 末夫人: 임미라 ●호 실: 101호 ●발 인: 5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65	102호 故노민철 님(남/51세) 兄弟: 노수철 ●호 실: 102호 ●발 인: 5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401호 故김대형 님(남/71세) 子/子婦: 김기우/박연경, 현우/박해숙, 영우/최미라 女/婿: 김정숙/최현수, 민숙/민병욱 ●호 실: 401호 ●발 인: 5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이판이 님(여/76세) 子/子婦: 박용희/김민자, 광희/박말숙 女/婿: 박용자/최형석, 용숙/이준식 ●호 실: 402호 ●발 인: 5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 福 齋 長 祭 式 場 孝 金 福 齋 長 祭 式 場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